

# 농가돕기 전방위적 지원

### 익산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피해 최소화 총력 영농철 일손 돕기·화훼 농가 융자금 이차보전 등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영농철 농촌 인력지원, 화훼 농가돕기 운동 등을 추진하며 농촌 활력을 되찾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학교 급식 납품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시청 전 직원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8개 품목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착한 소비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토록 하여 총 5천 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지난 27일부터 유치원·초·

중·고등학교생 3만4,441명의 가정에서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무상 공급해 농가들의 막대한 판로를 열어 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육선과 야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입점 판매를 하고 유튜브 홍보를 지원하며 익산몰(www.ksarm.all.com)에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코너 신설하는 등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촉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익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익산에 거주하는 임산부 1,800명에게 연말까지 월 6만원씩 총 48만원 상당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비판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지연 등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미래농정국에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마·삼기·남산농협의 농촌 고용인력센터와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9개

농협에서는 총 618개 농가를 지원하고 익산 시청·농협 직원 등 105명이 5회에 걸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방문비자(F-1) 체류자격 외국인과 농가를 연계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이달 30일까지 접수중이며, 각종 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매출이 폭락한 화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에 가능성 필름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업인 다중방문 사업장 시설 소독을 위해 초미립자 살포기와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도매시장은 매일 자체소독과 주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농민회 등 단체 사무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매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부청사 현관에는 대인소독기를 설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의 감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물 판매업소 등 627개소에 방역용품을 배부하고 거점소독초소에 운전자가 차량 및 대인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골목상권 종합지원 전담창구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을 도내 처음으로 설립해 28일 공설시장 3층(신금길 18)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본격 가동... 골목상권 살리기 최우선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인 상권활성화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골목상권 종합지원 전담창구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을 도내 처음으로 설립해 28일 공설시장 3층(신금길 18)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강임준)은 지난해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무국과 상권트레싱사업단 직원채용을 통해 상권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췄다.

재단은 군산시 상권 종합점검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단계별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단은 올해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과 공실상가 활용프로그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아울러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0억원 규모의 상권트레싱사업도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상가, 공설시장, 신영시장 등 17만7650㎡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박지형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상권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상권과 소통하고 상권별 진단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에 힘을 쏟겠다.”며 “재단이 군산시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임준 이사장은 “재단이 소상공인들의 소용돌이 역할을 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 전체 상권을 아우르는 종합점검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콜센터로 기부 첫 테이프

### 기부문화 붐 조성 술선수범

정현을 익산시장이 새로운 기부문화에 불을 일으키고자 28일 전국 최초 도입한 기부콜센터(☎ 1577-0072)를 이용해 재난기본소득 1호 기부자로 나서서 화제이다.

시는 그동안 기부관리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기부자에 단발적으로 대응했으나 콜센터 도입에 발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28일부터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각종 현금, 현물 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들에게 기부콜센터 및 읍면동 방문을 통해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익산사랑자매재단에 기부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기부콜센터에는 기부 방법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하여 익산시에 기부문화의 새로운 불이 일어날 조짐이다.

현재 익산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

회 단체 및 사회 지도층에서도 기부를 하겠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억4천여만원의 성금과 물품이 모아졌으며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식재료 기부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익산시민의 특별한 기부문화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싶다. 익산시 기부에 대한 새로운 불을 계속 지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새로워진 공익직불제 내달부터 시행

익산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8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이고 이를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워킹스루’ 장난감대여

익산시가 직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지내는 영유아들을 위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난감 대여실을 휴관중이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장난감을 대여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워킹스루’ 방법을 도입하여 장난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실외놀이터에 부스를 설치하고 대여일 연회원을 대상으로 평일 낮 11시~12시, 오후 4시~5시에 대여를 진행한다. 대여를 원하는 연회원 가정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사전 전화예약 (063-859-4764) 후 방문하면 된다.

대여는 사전예약자가 도착하면 손소독, 발열체크, 반납물품 확인, 대여 순으로 안전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왕궁면 시온육아원에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익산시가 2020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왕궁면에 위치한 시온육아원에 ‘복지시설 나눔숲’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을 투입해 시온육아원에 산책로, 수목식재 등 나눔숲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4월에 착공하여 5월 중순경 완공을 목표로 시온육아원 내 내대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만들고 소나무, 배롱나무, 수수꽃다리 등 20종 4,601주의 교목과 관목을 식재한 열린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복원기금으로 조성·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군산사랑 선불카드 불법유통행위 막는다

최근 일부에서 군산사랑 선불카드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가 감지되며 군산시가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의 속도감 있는 회복을 목적으로 도내 최초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은 1장당 10만원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으며, 군산지역 내에 서만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집중배부와 온라인 신청자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이 본격화되면서 선불카드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

메마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이 군산사랑 선불카드가 매물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어, 군산시는 이에 강력대응 방침임을 밝혔다.

10만원권인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1만원이 할인된 9만원에 내놓은 매물이 있으나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확인됐다.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점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의 불법적인 양도·양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